

##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에 대해 공부를 해 보십시오.

로마서 1 :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 For therein is the righteousness of God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 신학을 support 하는 대 명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 반대 명제(Anti-thesis)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이 생각나는 구절은 없습니까?

창 2 장:17 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 2 : 17 □□□ □□□□ □□□ □□□ □□ □□ □□ □□  
□□□ □□ □□□□ □□□□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은 완전히 반대되는 대칭이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를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죽으려면 먹어라 ! 살기 위해선 믿어라.

행위로(=먹는 것으로) 의를 얻으려 하면 죽고, 믿음으로 의를 얻으려 하면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성경 신학을 support 하는 대 명제입니다.

먹으면 - 죽는다 mortality - ( Good)

먹지 않으면 - 죽지 않는다 immortality - ( Good)

믿으면- 산다 eternal life - (Good)

먹지 않으면 - 산다 eternal life - (Bad)

우리 딸 은혜가 고등학교 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선악과를 먹는 것이 왜 나쁜거야?”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선악을 알고 선을 행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나쁜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하면 그것은 생명에서 이탈하여 죽는 길이다!

이것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한 말의 의미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인데(불사성, immortality)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산다 (영생, eternal life)’ 고 하여 행위를 구원에 연결시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선 믿음의 길을 택하라! 이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 뿐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다는 것은 창세전이나 창세 후나, 타락전이나 타락 후나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고, 한 때는 행위로 구원을 약속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일성, 진리의 단일성에 어긋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대 명제가 창세때 부터 있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 I.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가 창세때부터 있었는가?

아담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찾아 보십시오.

먼저,

창세기 2 : 17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지만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완전한 이런 절뚝발이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이렇게 만드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하기 전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 의지를 주시되,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보존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는 믿음에 의해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 신적본성에 일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자유 의지는 완전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른 선택을 하였다고 해서 내일 바른 선택을 또 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선택한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으면 죽는다는 지식이 아닌 먹으면 죽는다는 믿음이 지속적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선택한 것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허락하신 믿음의 바른 행사를 통해서 유지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 .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순종하는 것은 믿음에 속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숨결에 의해 흙으로 부터 만들어진 인간은 피조될 때 부터 이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 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에 굳건히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의 수행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떠나면 곧 바로 불순종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됩니다.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믿음이 개입될 때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은 믿음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함이 일차적 원인이 됩니다. 불순종의 행위는 불신앙의 결과일 뿐입니다. 아담은 외면적으로 불순종의 죄로 타락하였지만 그 내적 원인은 불신앙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영생의 언약에서 떨어진 것은 이 믿음 때문이고, 불사성의 상실은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이 믿음을 저버리고, 사탄의 말에 유혹되어 타락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자유 의지와 자유 모든 부분이 타락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것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말에 유혹되어 타락한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을 한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선과 악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가진 아담이었지만, 자기의 선택이 유지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타락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은 절대자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을 현재의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은 믿음의 기초가 되지만, 그것은 신앙의 기초가 될 뿐 믿음 그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 다시 말하면 이성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않음에는 육신의 불사성이 약속되어 있고, 영생과 불사성이 다른 것이라면, 영생의 약속은 무엇에 약속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많은 혼동을 합니다.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필요한가?

영생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약속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 : 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 : 2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자니라

태초부터는 시간이 있기 전을 의미합니다.

또 영생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약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 : 20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1 John 5:20

And we know that the Son of God is come, and hath given us an understanding, that we may know him that is true, and we are in him that is true, even in his Son Jesus Christ. This is the true God, and eternal life.

믿음으로 얻어지는 영생은 하나님인 예수님 한분만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그는 참 하나님이지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떠나서는 영생의 약속은 존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 믿음에 의해 영생의 약속과 불사성을 약속받았다면 그 약속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지 않으리라 한것은 불사성의 약속이며, 이것은 먹지 않는 행위에 부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생의 약속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논증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이며, 살리라 하는 것을 바로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로마서 10 :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 :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박형용 박사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은 영생의 약속은 가졌으나 아직 취한바 되지 않았다고.

이 말은 아담은 에게도 벌써 영생에 대한 약속이 언약으로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디도서 1 : 2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2 In hope of eternal life, which God, that cannot lie, promised before the world began;**

영원전에 신인이신 삼위일체의 제 2 위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생의 약속은

1 : 9

이 약속은 아담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약속의 근거가 에덴 동산 안에는 선악과 뿐이 아닌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생명나무를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라고 신국(City of God)에서 말했습니다.

###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필요한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전달자로서, 계시의 매체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모든 부분에서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 : 30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생활 전체에 미친다는 말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이 우리 신앙 생활 전체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신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고, 예수님은 신인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신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오르실 수 있고, 예수님은 신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영인 성령을 우리 인간에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과 의를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길을 지도하십니다(시 32:8).

시편 32 : 8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예수님이 신인이신 중보자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곧바로 마비가 됩니다.

이것은 타락하기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인이시라는 믿음은 타락전이나 후이나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